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

일시: 2014년 2월 24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4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8기 독자위원회는 강대석·김경태·김윤하·문방진·이묘숙·이철갑·임효택·장우철·정의춘·조미옥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독자위원회는 1년간 5차례 모여 광주일보의 제작 전반에 대한 평가와 비판, 조언을 하게 된다.

'6·4 지방선거' 정당·후보에 대한 비판·감시 역할 충실히 해야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3대 역사 완공의 해' 시리즈
심도있는 취재·분석 돋보여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실장)



업종별·권역별 경제분석
기업 투자유치 도움될 것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타지역 문화예술 소개 유익
여성·생활면 없어 아쉬움

정의춘 (광주YMCA 시민운동팀 총괄팀장)



광주일보 어플 이용 불편
SNS 활용 방안 마련해야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2014년 새해를 맞이한 지 불과 두 달 새 AI·우이산호 기름 유출·염전 노예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동계올림픽, 6·4 지방선거 등 이어진 이슈도 적지 않다. 다양한 현장을 누비면서 빈틈없는 취재와 제작에 구슬땀을 흘리는 광주일보에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올해 초 가장 돋보였던 기사는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역사 완공의 해' 시리즈다. ▲호남고속철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나주혁신도시 건설 등의 세 가지 사업을 심도있게 취재하고 분석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6·4지방선거 관련 기사도 광주일보 특유의 저력을 보여줬다. 신년 특집 역대 단체장 분석과 여론조사, 설 특집 '한눈에 보는 입지자' 등을 포함해 판세 분석과 입지자 동정 등을 한 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한 '화합의 강 심진강' 시리즈도 현 정부가 심진강 수계를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1월23일자 1면에 실린 '몸부 빙하에 얼음은 없고 물두더기만' 기사로 시작해 총 3차례 실린 에베레스트 트레킹 체험기와 사진은 다양한 여행정보 제공은 물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실장)
세계 경제가 들쭉이 있고 있다. 양적완화와 축소 등 해외 경제 정책의 변화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경제 영어 자체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런 변화가 실제 국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광주일보가 친절하게 이를 설명해서 독자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

광주·전남 지역은 산업적인 구조가 수도권이나 영남권과는 다르다. 제조업은 규모가 작지만, 건설업 비중은 크다. 경제 지표의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화를 부각시켜 기사를 작성한다면 지역민과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지역별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역별 보도는 많지만, 지역을 세분화해 한데 묶는 권역별 기사는 찾기 어렵다. 경제 블록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모아 분석한다면 타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신년특집 기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주 혁신도시를 다뤘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공사가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운영주체나 예산이 채워질 지점이 많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다. 광주일보가 기사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짚어주고 있다는 점은 좋지만, 보도자료나 관에서 나온 내용뿐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총괄적, 세부적 기사를 적절히 배치했으면 한다.

아시아예술극장이나 문화정보원 등 아시아문화전당 내 건물들이 이렇듯 비슷하고 성격규명도 명확하지 않아 헷갈린다. 시와 추진단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나서야 한다. 올해 말 완공되고 내년 다양한 콘텐츠가 공연될 것인데, 대부분 실험적이라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중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개발되도록 관심과 자극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올해는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성이나 가족과 관련된 기사, 미담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면이

줄면서 과거 여성·생활면이 사라진 점은 아쉽다. 매주 한번이라도 기획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의춘 (광주YMCA 시민운동팀 총괄팀장)
SNS를 통해 광주일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일보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봤지만, 기사가 늦게 갱신 돼서 불편했다. 생활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는 독자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시민만큼 민주당,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등에 바라는 점들도 많다. 광주일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당이나 특정 후보와의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광주·전남 지역민이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복지는 물론이고 사회도 양면이 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과해쳐서 부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재능기부센터의 경우, 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데 광주일보는 스스로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굴해서 기사를 작성한다. 1월28일자 '올해도 '나눔바이러스' 멀리멀리 퍼졌으면...' 기사도 그런 기사 중 하나다. 복지분야의 발굴, 미담 기사를 많이 발굴해주길 바란다.

◇문방진 (전 광주지법 징중지원장)
광주일보는 매주 법조 칼럼을 통해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인의 의견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신문 중에서 광주일보가 유일한데, 법조 영역에 있어서 타지역 신문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칼럼 코너에 생각이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꼽자면, 일단 10년이 넘게 지속해오며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칼럼을 작성하는 사람만 지정해 줄 것이 아니라, 주제를 지정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광주일보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1월31일 여수에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15일 동안 6건의 사실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뒤 일주일간 1면에 관련 기사가 실릴 정도로 광주일보가 관심을 쏟기도 했다.

하지만, 논조가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러웠다. 2월14일자 7면(사회)에는 환경영향에 지속적일 것으로 우려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11면에는 '여수산 수산물 안전하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다. 다음날 사실에는 '환경조사가 먼저'라는 내용이 실렸다.

또,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가 아쉬웠다. 시 간이 부족한 때문이었는지 전반적으로 기사의 깊이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획기사나 취재기사 등 연속보도를 할 때 전문가 집단을 접촉해 기사를 작성한다면 더욱 풍성한 기사가 됐을 것이다.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 처리비용 문제 등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복지·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조리 척결 핵심 역할해야

문방진 (전 광주지법 징중지원장)



법조인의 의견 실은 법조칼럼
다양한 이야기 담았으면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기름유출' 보도 일관성 부족
전문적 지식부재도 아쉬워

비슷한 시기 AI(조류독감)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식 보도가 되지 않았다. 관련 종사자들이 전남지역에 많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의 중심을 잡고 기사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꾸준히 후속보도가 실려야 한다.

2월18일 '대한민국은 영남공화국' 기사나 '지차제 파산제'와 같은 기사는 눈여겨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금과 같은 세급 체제나 세목으로는 지방재수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예측이 심화될 것이다.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 방안도 검토해준다면 지방 선거와 맞물려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 (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21개(1층 상가 2칸, 2층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리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공사완료
고급주택, 정남향
(상가 원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공 3억, 보 1억)

★수원지구상가(수익형, 확실보장)★

매매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용 2억
	3층상가(85평) 모이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용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용 1억5천
임대	1층(18평) 대방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이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리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용 1,000만)
-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용 1,000만)
-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용 1,500만)
- 투룸형 임대 즉시입주가 출몰선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주)대신종합건설개발 ☎010-6670-9800/ 062)952-598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빌딩 (옛 재중병원지리)
중심상업 소풍거리

154평 (매가 8억5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웃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하이앤씨
010-6670-98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육,학원,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2천선에 월500선 9억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대지 923㎡(280)건물 7589㎡(2296)요양시설,병원,사육 등 적합 은행 26억 매도 41억
- 임동4차선도로 상업지 516㎡(156)은행 6억 5천 매도 7억

임대·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화순군 능주면 관리지역 1296㎡(392) 2천만원
- 해남군 문내면 전과 담 5557㎡(1681) 은행 6천 귀농생활에 최적합 매도는 은행인수하고 천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162)은행 2천 매도 4천
- 신축쓰리룸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 9천
- 북동 상업지 992㎡(300) 오피스텔 생활주택등 다용도 8억
- 쌍촌동 구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500에 40선 1층 가계 22평도 임대가능 가격은 타협가능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중 주거지 674㎡(316)디가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삼각동 2중 주거지 618㎡(187)원룸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판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촌동 광산동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계림동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용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도 255㎡ 매 12억(보 1.3억, 월600만 유영 프랜차이즈 입점)
-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중지 6,300㎡ 매매 50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39억
-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신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